

교원능력개발평가 익명 보장 확실한가요?

중2 학부모입니다. 매년 11월이면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받는데요, 익명 보장이 확실하니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학교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등을 솔직히 작성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에게 행여 불이익이 갈까 걱정돼 적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간혹 '이건 좀 시정해주셨으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게 확실한가요?

_ 윤지민(42·서울 강남구 일원동)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입력한 응답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는 모두 익명 처리됩니다. 또한 지나친 욕설이나 비방, 인신공격 등이 포함된 서술형 답변은 교사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필터링을 거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 교원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교육 활동을 진단하고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교사들은 더 나은 교육 활동을 위해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전북 근영중 조은경 수석 교사는 "평가에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 모두 포털사이트를 통해 작성하다 보니 글씨체가 드러나지도 않고 학번 순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한 이를 알 수가 없다"고 전합니다. @

MORE TIP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선 학생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고유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해당 학교 학부모와 학생만이 설문에 참여하게 하려는 교육지책이다. 고유 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더라도 이를 통해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절대 식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누적 백분위와 평균 백분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학부모인데요. 정사에서 누적 백분위라는 것을 쓴다고 해서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백분위를 쓰는 거려니 했는데, 아니라네요. 정사에서 쓴다는 누적 백분위란 무엇인가요?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백분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_ 임정현(51·서울 강서구 마곡동)

누적 백분위는 전체 수험생 중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지만, 추정치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라”고 하지만, 수능에서 ‘몇 개 틀렸다’ 혹은 무슨 과목에서 ‘몇 등급이다’라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개별 과목의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은 수능 성적표에 나오지만 전체 과목을 합친 등수나 성적은 추정해 짐작할 뿐입니다.

고1, 2 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력평가 성적표에 ‘국+수+탐 백분위 98.87’이라고 나왔다면 자신보다 낮은 점수가 98.87%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학생은 상위 1.13%, 즉 누적 백분위 1.13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입시 기관과 전문가들은 통계적으로 누적 백분위를 추정한 자료를 수능 후 내놓으며, 수험생은 이 자료를 참고해 정시 지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장문성 학력개발원장은 “대학마다 수학과 국어, 탐구 반영 비율이 달라 어느 과목을 잘 봤느냐에 따라 대학마다 유불리가 생기고 누적 백분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대학에 따라 학생의 위치 또한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평균 백분위는 수능 성적표에 나온 백분위를 평균 낸 것입니다. 국어와 수학, 탐구 두 과목의 백분위를 평균 낸 것이죠.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www.adiga.kr) 등에서 입시 결과를 백분위로 공개하는 경우는 이 평균 백분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MORE TIP

누적 백분위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수사에서 합격해 정시에 지원하지 않을 학생도 누적 백분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면서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을 나눠 누적 백분위를 추정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오차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손희승 리포터 sonhi1970@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